

토니 모리슨 소설에 구현된 몸의 정치학

조 비 결
(강원대학교)

Cho, Be Kyoul. "Body Politics embodied in Toni Morrison's Novel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3 (2018): 177-196. This essay explores how body politics embody in Toni Morrison's novels, *The Bluest Eye*, *Beloved*, and *Home*. Morrison delineates black people as the victim of racial ideology or white supremacy. She postulates that blacks are the victim of body politics by white people in American history as a means to their political and ideological end. As Morrison puts it, blacks are people marked because of their skin color in America, I try to elucidate her novels in terms of body politics. There is negative body politics victimized by white supremacy through her works. In her first novel, *The Bluest Eye*, she portrays black body as a victim of racial prejudice by white people. She also depicts body politics of black people by whites' slavocracy in *Beloved*, her representative novel. In her recent novel, *Home* can be also read the text of black body politics of war and eugenics under the white supremacy. At the same time, she suggests solutions of positive body politics including communal ethics and blacks' responsibility and identity. Describing herself as an egalitarian, Morrison provides insight into an egalitarian hybrid society based on tolerance by embodying negative body politics by white people and positive body politics by black peopl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body politics, white supremacy, racial prejudice, black identity, egalitarian hybrid society.

I. 들어가며

몸의 정치학이란 개인의 몸을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미국사회에서 백인들이 그들만의 문화와 권력으로 흑인들에게 가한 노예제도와 인종적 편견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몸의 정치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희생양의 정치학”(Phipps 20)을 제시하며, 노예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피부색의 편견이야말로 흑인을 약자로 드러내는 표식이라고 피력한다(Schappell 84).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미국사회에서 차별의 폐해를 실제 경험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서한형식의 작품인 2015년 타네하시 코츠(Ta-Nehisi Coates)의 『세상과 나 사이』(*Between the World and Me*)가 미국의 베스트셀러이자 미국 대학교 필독서이며 작가 모리슨이 추천사를 써 주었다는 점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초석위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사회가 과거 노예제도에 이어 현재까지도 인종적 차별과 편견이 자리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민주주의 미국사회에서 몸의 정치학은 여전히 사회 정의에 반대등가로 자리하고 있다. 모리슨의 작품이 백인 우위사회에서 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흑인들을 묘사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제시하는 정치적인 서사(Ferguson, 154)라는 점에서, 본 논문은 1970년 모리슨의 첫 소설,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1987년 그녀의 대표작품인 『빌러비드』(*Beloved*), 그리고 2012년 최근작 『집』(*Home*)을 통해 초기, 중기, 후기 세 작품 속에 일관되게 인간평등과 사회정의에 관한 모리슨의 몸의 정치학이 구현되고 있음을 밝혀 보고자한다.

본론 첫 장에서는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흑인들의 몸과 분열된 의식을 부정의 몸의 정치학으로 정의해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인간평등과 사회 정의에 반하는 미국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고찰해 볼 것이다. 본론 두 번째 장에서는 모리슨이 세 작품을 통해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악용된 몸과 분열된 의식에서 벗어나 흑인들이 온전한 몸과 의식의 주체이자 미국사회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자존감을 확립하며 다양한 혼종의 미국사회에서 평등한 사회정의 구현이 이루어지길 강조하고 있음을 긍정의 몸의 정치학으로 정의해 분석하고자한다. 『가장 푸른 눈』에서 백인 지배 권력의 희생양이 된 몸의 정치학으로 인종적 편견이 흑인의 몸과 의식을 어떻게 파괴하고 분열시키는지 분석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흑인공동체의 결속력과 흑인 개인의 정체성 구축을 강조하는 긍정의 몸의 정치학을 구현하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빌러비드』 작

품에서는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형성된 노예제도가 흑인의 몸과 의식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부정의 몸의 정치학임을 밝히고 작가가 노예제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흑인공동체의 결속력과 개인의 자존감 구축을 강조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긍정의 몸의 정치학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이라는 작품이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이 전쟁과 우생학의 희생양이 된 몸의 정치학적 서사임을 밝히며, 작가 모리슨이 『가장 푸른 눈』과 『빌러비드』 작품의 주체와 일관되게 흑인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흑인의 자존감 형성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공동체로 인간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긍정의 몸의 정치학을 구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한다.

II. 부정의 몸의 정치학: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희생양으로서 흑인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에서 흑인 소녀 피콜라(Pecola)를 백인 우월주의의 희생양으로, 가련한 희생적 제물로 서술한다. 흑인들의 피부색이 백인 우위 사회에서 약자임을 재현하는 표식(Schappell 84)이라고 작가 자신이 언급하듯이, 주인공 피콜라는 백인 우위사회에서 약자중의 약자로 묘사된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한 1930년대의 인물 피콜라는 파란 눈과 하얀 피부의 백인만이 아름답다는 당시 사회기준에 의해 흑인의 검은 피부를 혐오하고 하얀 피부와 파란 눈을 갈망한다. 그렇기에 백인의 하얀 피부와 “파란 눈을 갖고 싶어요”(175)라며 피콜라는 흑인이 아닌 백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백인이 우월한 사회에서 흑인은 그들에 의해 타자화된 존재(Fanon X)라는 점에서 피콜라는 우월한 백인에 의해 상대적 약자가 된 타자화된 존재이다. 즉, 피콜라는 당시 백인우월 사회의 미적 기준에 경도되어 그녀의 검은 피부로 인해 부모와 학교와 마을 공동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기혐오”(122)와 광기에 이르게 되는 부정의 몸의 정치학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작가 모리슨은 역설적이게도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은 흑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백인과 동등한 미국인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고 지적한다(Hostetler 32). 다문화, 다인종의 미국 사회에서 백인만이 온전한 미국인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백인우월주의는 백인 이외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부정의 몸의 정치학이다. 이분법적으로 백인과 흑인 또는 자아와 타자로 구별하는 개념은 인종적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백인 문화의 우월성에서 기인한 것(Bhabha 96)이라는 점에서 백인의 하얀 피부에 반하는 피콜라의 검은 피부는 정치학적 희생양의 몸을 드러내는 상징적 기제로 작용한다. 피콜라는 그녀를 에워싼 가정과 사회 환경에 의해, 백인과 흑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간극으로 인해 흑인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경도된 생각이 각인되어있다(Harris 16). 백인만이 우월하고 아름답다는 백인 지배 권력의 가치기준은 피콜라에게 백인과 동등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백인 지배 담론에 의해 인종적 혐오의 대상이 된 흑인들은 미국사회에서 미국인이라는 주체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을 지닌 주변인의 존재로 정치학적 몸의 희생양이 된다.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이 된 피콜라를 통해, 모리슨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드보이스(W. E. B. DuBois)의 이중의식의 개념을 극화해 보여주고 있다(Grewal 30). 부모와 이웃들로부터 흑인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었던 피콜라는 백인 중심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화된 흑인의 몸의 희생양적 인물로 제시된다. 모리슨이 작품 속에 담아내는 인간의 몸은 한 개인의 몸 일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문화를 재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언급한다(Grewal 37). 작가는 피콜라의 검은 피부와 그녀가 갈망하는 하얀 피부와 푸른 눈동자를 대비함으로써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사회의 모순성을 지적한다. 백인만이 아름답고 흑인은 추하다는 인종적 편견의 이분법적 도식은 백인 지배 권력이 양산한 몸의 정치학적 기제이다. 인종적 편견은 피콜라로 하여금 그녀의 가족들과 이웃들, 학교에서까지 가난하고 추한 흑인소녀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피콜라는 더욱 “주변인의 존재”(Furman, 14)로 전락된다. 심지어 사회정의와 평등을 교육할 학교 선생님들

조차도 피콜라를 혐오스런 존재로 바라본다. 학교 친구 멀린 필(Maureen Peal)은 “넌, 추해! 까맣고 추해”(56)라며 피콜라의 고유한 흑인성을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으로 인식한다. 인간으로서 아름답다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없는 피콜라는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83)를 지닌 인물이다. 모리슨은 소설 후기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되 존재감이 없는 인물인 피콜라가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지, 왜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갈망하는 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은 인종적인 자기혐오였다고 언급한다(211). 당시 백인만이 아름답고 우월하다는 정치학은 흑인들을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모리슨은 백인 중심의 주류 문화 내에서 주변인이라는 존재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으며 미국인이라는 정서 속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박탈감에 대해 피력한다(Rushdie 55).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에 관한 편견과 차별은 미국 사회에서 아프리카 미국인을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주변인의 존재로 전락시킨다.

모리슨은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으로 흑인 소녀 피콜라와 더불어 그녀의 아버지 출리 브리드러브(Cholly Breedlove)를 묘사한다. 출리는 백인우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속에서 타자화된 몸과 분열된 의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작가는 흑인남성을 백인에 의해 거세된 타자화된 몸으로 간주한다(Stepito, 17). 피콜라의 아버지 출리 또한 피콜라와 같이 백인 우위 사회에서 강한 백인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유약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는 가정적으로 “엄마에게 버림받고 잃을 게 없는”(160) 존재가치가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백인남성들이 보는 앞에서 연인과의 사랑을 강요당하는 충격을 경험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위험할 정도로 자유롭고 폭력적 인물”(125)이 된다. 백인에 의해 타자화된 몸과 의식의 분열을 보이는 출리는 백인들이 가한 폭력을 대물림하듯 자신의 딸 피콜라를 성폭행하는 반인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백인에 의해 타자화된 열등한 몸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출리는 “이차원적인 존재”(Fanon 9)이자 모리슨이 언급한 “주변인의 존재”(Rushdie 55)가 된다. 모리슨은 피콜라와 더불어 그녀의 아버지 출리를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객체화된 몸과 분열된 의식을 지닌 정치학적 희생양으로 묘사한다. 모리슨은 사회

적 약자로서 검은 피부의 흑인인 피콜라와 출리 부녀의 자기혐오가 백인 중심사회에서 몸의 정치학적 희생양으로 초래되는 것임을 제시한다(Furman, 15).

초기작품 『가장 푸른 눈』에서 모리슨은 파란 눈을 갈망하며 광기에 이르는 피콜라와 그녀를 성폭행하는 아버지 출리를 통해,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으로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Denard 186)로서의 흑인을 제시하였다면, 중기작품 『빌러비드』에서 쉘드라는 흑인 여성이 자신의 딸을 노예로 만들 수 없다며 살해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이 된 흑인들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노예제도는 백인들의 지배 권력에 의해 흑인들의 몸을 “객체화와 예속화”(Foucault 192)하게 만들었던 비인간적인 사회제도이다. 노예로 만들 수 없다며 어린 딸 빌러비드를 살해한 쉘드의 모성애는 폴 디(Paul D)의 말처럼 “너무 짙은 사랑”(165)이다. 쉘드의 경우처럼, 백인들이 가져다주는 불운으로서의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는 안온한 사랑을 위험한 사랑으로 만든다(Furman, 71). 쉘드가 자신의 딸을 노예의 몸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없다며 영어의 몸으로 만든다는 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이며 극단적인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작가는 백인의 지배 권력에 의해 흑인의 몸과 정신을 예속시키는 노예제도가 자녀를 살해할 만큼 강렬한 사회적 정치적 해악임을 쉘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모리슨은 노예제도를 개인적 망각을 넘어서 국가적 망각이라 언급한다(Anglo 256). 노예제도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망각하고 싶은 기억이자 과거의 역사이다. 작가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대해 용인할 수 없으며 그런 노예제의 과거를 왜곡하고 간과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강조(Hackney 129)하듯이, 『빌러비드』에서 모리슨은 참혹한 노예제도를 경험한 자유인 쉘드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몸과 그로 인해 분열된 의식을 표현한다. 노예로 끌려 온 아프리카인들의 노동력이 미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미국사회에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 침입자”(148)이며 “뿔 없는 황소들”(148)처럼 인간이하의 동물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작가는 백인 지배 권력에 예속되고 타자화된 흑인의 몸으로 전락시키는 노예제도가 주인공 쉘드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을 죽이게 할 만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해악임을 신랄하게 표현한다. 이 작품 속에서 60년을 노예로, 10년을 자유의 몸으로 산 쉘드의 시어머니인 베이비 석스(Baby Suggs)가

“이 세상에 백인을 제외하고 더 나쁜 불운은 없다”(122)고 서술한다. 흑인들에게 가장 사악한 인물로 인식되는 백인 노예주들과 사회악으로 인식되는 노예제도는 다시는 백인 노예제도 하에서 살게 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양상을 초래한다. 모리슨은 다음 쉘드의 말을 통해 빌러비드를 죽이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나만을 위한 즐거움은 전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야. 다시는 옛날 그 곳으로 되돌아가게 할 순 없었지, 그런 학교 선생 아래서 그 아이 나 그 어느 누구도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한 거지.

“Well, all I’m saying is that’s a selfish pleasure I never had before. I couldn’t let all that go back to where it was, and I couldn’t let her nor nay of em live under schoolteacher. That was out.” (192)

셸드와 그녀의 자식들은 백인노예주에 의해 예속된 노예의 몸이 아닌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된 시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을 끔찍한 노예로 다시 만들 수는 없었기에 죽음을 선택한다. 노예제도하에서 셸드의 몸은 백인 노예주인 스쿨티처(Schoolteacher)에 의해 동물이나 물건처럼 “가격”(228) 또는 “재산”(228)으로 예속된 타자화된 몸이다. 셸드와 같은 노예로서의 흑인들의 몸은 백인노예주에게 “희생양의 정치학”(Phipps 20)으로서의 몸이다. 이러한 인식이 셸드로 하여금 그녀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이 백인 노예제도하에서 흑인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 더 커다란 비극을 초래한다. 셸드에 의해 네 자녀들 중 어린 딸 빌러비드만이 죽임을 당하고 그녀를 살해한 이후 셸드는 잔혹한 노예제도와 빌러비드를 죽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가는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모리슨은 셸드를 통해 노예제도와 같이 불운한 역사적 상황에서 흑인이 자신의 몸을 소유하는 방법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었으며 셸드가 빌러비드를 살해한 이유는 너무 기이한 일이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단호한 결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한다(Rushdie, 56). 이와 같은 작가의 언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너무도 기이한 반인륜적인 자식 살해가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으로 백인 지배 권력이 야기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

인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모리슨은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에 대항하는 쉘리의 유아살해가 정신분열적 행위이나 그녀를 단순히 정신분열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Silverblatt 172)하는 점은 쉘리의 분열된 의식이 백인 지배 정치의 희생양이 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빌러비드』를 통해 작가는 어린 딸 빌러비드를 살해할 만큼 끔찍한 노예제도가 백인 지배 권력의 몸의 정치학의 기제이며 이로 인해 백인과 동등한 흑인들이 상대적 역자로 노예로 그들에게 예속된 몸과 분열된 의식을 초래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푸른 눈』과 『빌러비드』와 같이 2012년 최근 작품 『집』에서도 모리슨은 주인공 프랭크 머니(Frank Money)를 통해 백인들의 지배 권력에 의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악용된 몸과 분열된 의식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인종 차별이 극심한 백인들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부모님을 따라 조부모님이 사는 로터스(Lotus)로 이주해 살며 백인들에 의해 흑인들만 모여사는 공동체 속에서 타자화된 몸과 분열된 의식의 전형으로 프랭크를 묘사한다. 백인 우위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프랭크의 가족들은 그들만의 흑인공동체 로터스에서 백인들과 격리되어 열악한 삶을 이어나간다. 빈한한 삶 속에서 학교 하나 없는 흑인 공동체의 삶은 미국 사회 속에서 소속되지 못하는 흑인들의 삶 그 자체이다. 모리슨은 소설 첫 부분부터 정치학의 희생양으로서의 몸을 언급한다. 프랭크와 로크 목사(Reverend Locke)와의 대화를 통해 『가장 푸른 눈』의 피콜라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처한 흑인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자넨 길거리 출신인가? 아니면 병원에서 왔는가?”...

“자넨 다행이구먼, 머니 군. 백인들은 저 너머에서 많은 사체를 파는데.”

“몸을요?”...

“응. 의대 병원에.”

“그들이 죽은 몸을 팔아요? 뭐 때문이에요?”

“의사들이 가난하게 죽은 사람들 사체를 연구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부자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더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마감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맨 발에 헐벗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

“You Lucky, Mr Money. They sell a lot of bodies out of there.”

“Bodies?” ...

“Uh-huh. To the medical school.”

“They sell dead bodies? What for?”

“Well, you know, doctors need to work on the dead poor so they can help the live rich.” ...

“Well how’d you end up in the hospital ‘stead of jail? That’s where most barefoot, half-dressed folks go.” (12-3)

노예제도 폐지 이후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1950년대에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감옥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전히 타자화된 몸으로 묘사된다.

모리슨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흑인공동체 로터스를 국가의 보호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들만의 공간으로 프랭크에게 온전한 자존감을 형성시켜 줄 수 없는 거주공간으로 묘사한다. 이 작품에서 흑인들의 마을 로터스는 노예제도하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동력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인으로 약자들의 공간을 상징한다. 프랭크는 학교시설 하나 없는 흑인 공동체에 환멸을 느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고자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데, 이는 모리슨이 『가장 푸른 눈』과 『빌러비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으로서의 흑인의 몸으로서의 연장선상이라 하겠다. 피콜라가 인종 편견으로 인해 흑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혐오의 감정과 광기에 이르듯이, 이 작품 속 프랭크는 한국 참전 용사로 전쟁의 트라우마에 고통 받으며 분열된 의식과 “자기 증오”(15)로 타자화된 몸의 희생양이 된다. 즉, 모리슨은 자기혐오와 광기의 인물로 그린 『가장 푸른 눈』의 피콜라와 같이, 이 작품에서 프랭크를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전쟁”(93)의 희생양으로 죽어간 고향친구들을 지켜보며 트라우마로 인한 의식의 분열로 “미쳐가는”(98) 인물로 묘사한다. 프랭크는 미국 사회에서 격리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흑인공동체인 “로터스 고향 마을이 그와 그의 친구들을 질식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곳”(35)이라 여기며 고향을 떠나 미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그러나 한국전 참전 후 귀국한 프랭크는 고국을 빛낸 영웅적인 모습의 참전용사가 아닌 전쟁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의식의 분열을 보이는 정신분열 환자의 몸으로 전락한다.

이 소설에서 프랭크는 그 자신을 질식시킬 것 같은 그의 집과 흑인 공동체를 떠나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젊은 흑인 청년 프랭크는 한국 전쟁 참전 중 전사한 절친한 고향친구들과 뜻하지 않게 죽인 어린 한국소녀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정신적 약자로 그려진다. 한국 참전 후 미국에 돌아온 프랭크는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트라우마 후 정신적 장애현상을 보임으로써 참전용사로서의 존경받는 몸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는 사회, 정치학적 갇힌 몸이 된다.

모리슨은 프랭크를 통해 백인 우위의 정치와 사회에서 전쟁의 희생양으로 타자화된 몸의 전형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면, 그의 여동생 씨(Cee)를 통해 백인 우위사회를 유지 존속하는 기제인 우생학의 생체대상의 희생양으로서 악용되는 몸의 전형을 제시한다. 프랭크가 흑인 공동체인 고향집을 떠나 전쟁터로 향하듯이, 씨도 집을 떠나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가는 도시로 향한다.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는 도시의 삶속에서 씨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어느 백인 의사의 집에 취업하게 된다. 씨 자신의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우생학을 연구하는 백인 의사의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백인 의사 자본에 예속된 타자화 된 몸이 된다.

씨는 보우 의사의 사무실에 그가 도착하기 전에 들어갔다. 그녀는 항상 책으로 빼곡한 책장에 경외감을 느꼈다. 지금 그녀는 의학서적을 손으로 훑으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밤으로부터』. 그녀는 틀림없이 미스터리한 책 일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위대한 인종의 죽음』, 그 옆엔 『유전, 인종, 그리고 사회』라는 책이 보였다. 그녀는 학교공부가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것인가 생각하며 “우생학”에 대해 읽어보고 이해할 시간을 가져보리라 다짐했다. 여긴 참 좋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Cee entered Dr. Beau's office a half hour before he arrived. She was always in awe of the crowded bookshelves. Now she examined the medical books closely, running her finger over some of the titles: *Out of Night*. Must

be a mystery, she thought. Then *The Passing of the Great Race*, and next to it, *Heredity, Race and Society*. How small, how useless was her schooling, she thought, and promised herself she would find time to read about and understand “eugenics.” This was good, safe place, she knew. (65)

씨에게 닥터 보우(Dr. Beau)의 집은 가장 부러워하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주 안락하고 한없이 좋은 공간이다. 씨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반되게도 닥터 보우 집은 우월한 유전인자의 인종을 증진시키고 열등한 유전인자의 인종을 격리하도록 연구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공간이다. 즉, 백인 의사 닥터 보우의 집은 씨의 몸을 우생학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악용하는 가장 최악의 장소이다. 우생학은 사람의 유전자에서 문제를 발견해 문제를 가진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이다. 역사 속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차별하고 격리하며 강제불임하게 하는 등 국가폭력을 용인하게 만드는 이론적 논리기반이 바로 우생학이다.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에서 노예제도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 권력을 갖고 있는 백인들에 의해 인종적 편견의 희생양으로 여주인공 피콜라를 묘사하고, 『빌러비드』에서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된 여주인공으로 세트를 표현하였듯이, 『집』에서 프랭크의 여동생 씨를 통해서도 우생학의 생체 대상으로,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이 된 씨를 공통적으로 서술한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세 작품 속에 모리슨은 일관되게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타자화되고 예속화된 흑인들의 몸과 분열된 의식을 묘사함으로써 백인 지배 권력의 희생양이 된 부정의 몸의 정치학을 제시하고 있다.

III. 긍정의 몸의 정치학: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서 흑인의 몸

모리슨은 앞서 고찰한 세 작품 속에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백인들의 권력구조에 의해 정치,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흑인들의 그릇된 몸의 정치학을 제시함과 동시에 흑인들 스스로 자존감을 구축하고 평등한 사회정치의 주체로서의 몸과 의

식을 지닌 올바른 몸의 정치학을 보여준다. 작가는 세 작품 속에 희생양이 된 흑인의 전형과 더불어 올바른 몸의 정치학의 표본이 되는 흑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백인 지배 권력에 그릇된 몸의 정치학에 부단히 저항하고 그들과 동등한 미국 국민으로서 흑인의 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흑인의 모습을 발전적으로 묘사해 나간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자아로서의 배려의 윤리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타자 지향적으로 변모되는 것(정화열 25)이라는 관점에서 모리슨 작품 속 인물은 배려의 윤리를 지닌 품격있는 인물로 승화되어 묘사된다.

『가장 푸른 눈』에서 피콜라가 백인 우위사회에서 백인은 아름답고 흑인은 추하다는 인종적 편견과 자기혐오로 광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의 인물이라면, 피콜라의 이웃집 친구인 클라우디아(Claudia)는 피콜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흑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된다. 모리슨은 백인만의 미적 가치기준에 의해 파란 눈과 하얀 피부를 갈망하는 피콜라와는 대조적으로 클라우디아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백인 인형을 증오하고 해체해 보이며 백인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흑인 소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푸른 눈』속에서 클라우디아라는 인물은 피콜라의 “이야기를 말해주며 그 안에 의미를 전달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해설자”(Harris 5)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리슨은 다음과 같이 클라우디아의 서사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주체적 몸과 책임감 있는 윤리의식 그리고 결속력 있는 공동체에 관해 숙고하도록 이끈다.

흑인 소녀는 백인 소녀의 푸른 눈을 갈망한다....그녀의 아이가 조산으로 죽은 후.... 그 소녀는 보기에도 너무 슬펐다. 어른들은 고개를 돌렸고...아이들은 대놓고 비웃었다. 그녀에게 그 상처는 너무 컸다....우리는 인정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A little black girl yearns for the blue eyes of a little white girl,...after the baby came too soon and died....She was sad to see. Grown people looked away: children,...laughed outright. The damage done was total....we were not compassionate, we were polite; not good, but well-behaved. (204-5)

작가는 클라우디아의 서사 속에 백인 우위 사회에서 온전한 흑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었던 희생양으로서의 피콜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광기에 이르게 한 백인우위 사회와 흑인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시한다. 이 소설에서 클라우디아는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윤리가 근간이 되는 공동체와 흑인의 몸과 정신의 주체이자 윤리적인 자아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을 대변한다.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으로 묘사되는 피콜라와 상반되는 클라우디아를 통해, 모리슨은 흑인도 아름답다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명확히 제시한다(Grewal 21).

올바른 사회 주체로서의 몸과 윤리의식을 지닌 개인과 공동체 구현이 『가장 푸른 눈』에서 클라우디아의 서사를 통해 표현되어 졌다면, 『빌러비드』에서 모리슨은 베이비 석스와 폴 디를 통해, 또한 쉘드에게 살해된 어린 딸로 육화된 혼령의 인물인 빌러비드를 통해 트라우마적 과거를 극복하고 올바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이끈다.

빌러비드, 그 아인 내 딸. 보세요. 그 아인 자신의 의지로 내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돼요....그 아인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둔 거예요. 하지만 내 사랑이 너무 강해 그 아이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BELOVED, she my daughter. See. She come back to me of her own free will and I don't have to explain a thing....She had to be safe and I put her where she would be. But my love was tough and she back now. (200)

모리슨은 쉘드에게 죽임당한 어린 딸을 육화된 혼령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노예제도의 정치적 희생양의 몸이 된 쉘드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고 극복하며 조금씩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발전적인 인물로 그려나간다. 또한 쉘드의 시어머니인 베이비 석스를 통해 올바른 몸의 정치학을 강조한다. 이 소설 속 베이비 석스는 흑인공동체 사람들이 말할 수 없었던 조각 난 삶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Harris 174). 모리슨은 베이비 석스의 다음 말을 통해 흑인들에게 흑인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주체로서의 몸을 인식하고 그 몸을 보살필 것을 강조한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 그저 소리 내어 우시오,”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시작했다: 아이들은 웃고 남자어른들은 춤추고 여자어른들은 소리 내어 울며 그 다음엔 그 모든 이들의 춤과 웃음과 울음이 함께 했다.... 신성한 성자 베이비 석스는 그녀의 넉넉한 마음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여기” 그녀는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의 육신, 울고 웃는 몸... 그 몸을 많이 사랑해주시오 저 너머에 있는 그들은 그대들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대들의 몸을 멸시하오.... 내 사람들이여, 그들은 그대들의 손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오로지 이용해먹고 결박하고 잘라 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든 그대들의 손. 그 손을 사랑해주시오!”

“For the living and the dead. Just cry.”... It started that way: laughing children, dancing men, crying women and then it got mixed up.... Baby Suggs, holy, offered up to them her great big heart.... “Here,” she said, “in this place, we flesh; flesh that weeps, laughs;... Love it. Love it hard. Yonder they do not love your flesh. They despise it.... O my people they do not love your hands. Those they only use, tie, bind, chop off and leave empty. Love your hands!... (103-4)

베이비 석스는 흑인들에게 백인 노예주에게 예속되었던 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몸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그 몸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예속된 몸이었던 흑인 노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베이비 석스의 이야기는 사회성과 정치성을 내포한다(Grewal 14). 모리슨은 그녀를 통해 노예제도에 의해 예속되고 타자화된 몸으로 백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흑사당하고 악용당한 흑인들의 몸에서 벗어나 주체적 흑인의 몸과 의식의 보살핌을 올바른 몸의 정치학을 강조한다. 모리슨의 작품 속에 표현되는 집합적인 기억은 치유의 기능뿐 아니라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Grewal 15). 베이비 석스를 통해 작가가 제시하는 서사는 노예제도에 관한 흑인들의 공동의 기억의 상흔과 몸의 치유를 보여줌과 동시에 흑인들에게 가하는 백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정치적 기능을 내포한다. 백인 지배권력에 의해 희생된 몸이 아닌 주체적인 몸으로, 사회적, 윤리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살을 가진 몸으로 존재해야한다(정화열 183). 모리슨은 베이비 석스를 통해 흑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정치, 사회적, 윤리적 주체로서의 흑인의 몸과 의식을 강조한다.

『빌러비드』에서 베이비 석스가 백인들에 의해 타자화된 몸과 분열된 의식을 지닌 흑인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성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폴 디 또한 노예제도의 트라우마와 빌러비드를 살해한 행위로 인해 죄의식에 사로잡혀 점점 더 쇠약해져가고 분열되어 가는 쉘드의 몸과 의식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인물로 그려진다. 온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 없는 쉘드에게 건네는 다음 폴 디의 말을 통해 모리슨은 올바른 몸의 정치학은 본인 자신을 긍정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오직 이 여인 쉘드만이 그를 그렇게 남성답게 남아있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그녀의 이야기 옆에 나란히 높길 원한다. “쉘드,” 그는 말한다. “당신과 나, 우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어제를 가졌잖소. 우리에게엔 이제 내일이 필요하오.” 그는 숙여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다른 손으론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당신이 최고라오, 쉘드. 당신이.”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내가 최고라고? 내가?”

Only this woman Sethe could have left him his manhood like that. He wants to put his story next to hers. “Sethe,” he says, “me and you, we got more yesterday than anybody. We need some kind of tomorrow.”

He leans over and takes her hand. With the other he touches her face. “You your best thing, Sethe. You are.” His holding fingers are holding hers.

“Me? Me?” (322)

그릇된 정치학의 표본인 노예제도 안에서 쉘드와 같이 백인 지배권력에 의해 예속되고 파괴된 몸과 분열된 의식을 경험했던 폴 디는 그녀로 하여금 과거 노예 시절의 상흔에서 벗어나 온전한 몸과 마음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폴디가 쉘드에게 “당신이 최고”라며 건네는 독려의 말은 올바른 몸의 정치학의 표본을 대변해 주는 말로 정치, 사회적 주체로서의 몸과 의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베이비 석스와 폴 디를 통해 모리슨은 쉘드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가 정치,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길 강조한다.

올바른 몸의 정치학으로 사회, 주체적 흑인으로서의 몸과 의식을 강조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은 『집』에서 더욱 발전적인 양상을 띤다. 우생학연구의 희생양의

몸이 되어 거의 죽어가는 여동생 씨를 백인의사 집에서 구출하는 프랭크의 행동을 통해 작가는 성숙한 면모를 지닌 주체적인 흑인의 전형을 제시한다.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온전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었던 프랭크는 여동생 씨를 구출하러 가는 과정에서 분열된 의식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게 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아틀랜타 기차에 앉아 프랭크는 갑자기 그 기억들이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온몸을 마비시킬 만큼 절망의 순간으로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모든 슬픔과 세세한 일들을 회상할 수 있었다.

Sitting on the train to Atlanta, Frank suddenly realized that those memories, powerful as they were, did not crush him anymore or throw him into paralyzing despair. He could recall every detail, every sorrow, without needing alcohol to steady him. (99-100)

그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동생 씨를 구하러 간다는 책임의식은 프랭크로 하여금 술에 의지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전쟁의 희생양이 된 분열된 몸과 의식에서 벗어나게 한다. 프랭크가 가난한 삶으로 인해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랑과 교육이 부재한 공간인 로터스 고향집에서, 그가 보살피고 “책임졌던 첫 사람”(104)이 그의 여동생 씨였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분열된 의식에서 벗어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식의 발전을 이룬다. 프랭크에게 씨를 구출하고 보호하는 행동은 올바른 몸의 정치학으로 프랭크 자신 스스로가 몸과 의식의 주체로서 발전해 가는 행동이다. 즉, 생체실험 대상으로 병들고 손상된 몸으로 고통 받는 여동생을 백인 의사 집에서 구출하는 프랭크의 용기는 씨를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에서 비롯된다. 씨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은 프랭크에게도 그의 트라우마적 정신과 타자화된 몸을 회복시키는 동인으로 작용된다. 모리슨은 백인 지배 권력에 의해 소외된 흑인 공동체 마을 로터스를 떠나 더 큰 세상에서 소속감을 지니며 주체적으로 살고자 했던 프랭크와 그의 여동생 씨가 다시 귀향해 나누는 다음의 대화에서 백인 지배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저항하며 온전한 정치, 사회적 주체로서 흑인의 몸과 정신이 강조된다.

“너는 그런 사악한 의사들의 마차를 끄는 노새가 아니야.”

“누가 너를 쓰레기라 말했지?”

“내가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씨는 자신을 옹호하려 했다.

“불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 그래서 네가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불행이 네게 다가오니까.”

“You ain’t a mule to be pulling some evil doctor’s wagon.”...

“Who told you was trash?”

“How was I supposed to know what he was up to?”

Cee tried to defend herself.

“Misery don’t call ahead. That’s why you have to stay awake—otherwise it just walks on in your door.” (122)

프랭크는 여동생 씨가 분별력을 지니고 주체적인 몸과 마음을 갖기를 권유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이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차지하는 전략적 효과이다(Foucault 31). 이 대화에서 올바른 몸의 정치학의 정치, 사회적 주체로서 흑인들의 자아 존중감과 껴어있는 의식이 강조된다. 어린 시절 가졌던 열악한 공동체 마을에서 벗어나 프랭크와 씨에게 로터스 고향집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끼리 서로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발전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온전한 책임을 다했다. 상식의 부재는 화나게 했지만 그들을 놀라게 하진 않았다. 게으름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들일을 하던, 집에 있던, 뒤뜰에 있던 바쁘게 움직여야한다.... 나이 들에 대해 배울 수는 없지만 어른다움이란 것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었다.

They took responsibility for their lives and for whatever, whoever else needed them. The absence of common sense irritated but did not surprise them. Laziness was more than intolerable to them; it was inhuman. Whether you were in the field, the house, your backyard, you have to be busy.... You couldn’t learn age, but adulthood was there for all. (123)

모리슨은 타자화된 몸으로 몸의 정치학의 희생양이었던 프랭크와 씨를 통해 흑인 공동체 로터스를 “함께 관계하며 존재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정화열 128)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집』을 통해 모리슨은 주인공 프랭크와 씨를 포함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릇된 몸의 정치학의 표본인 노예제도와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적 주체로서 흑인 자신의 몸과 의식을 형성하는 긍정의 몸의 정치학을 제시하고 있다.

IV. 나가며

본론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모리슨은 미국의 백인 중심의 정치와 인종차별의 사회적 문제를 표현하고 미국 사회의 주체였던 백인중심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된 흑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몸의 정치학을 구현한다. 자신의 소설을 통해 모리슨은 한 개인의 심리와 기억을 더 큰 틀의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Grewal 14). 1970년 모리슨의 첫 소설 『가장 푸른 눈』에서는 백인의 파란 눈을 갈망하며 광기에 이르는 흑인 피콜라를 통해 백인만이 아름답고 우월하다는 인종적 편견으로 타자화된 부정의 몸의 정치학이 제시되며 클라우디아를 통해 흑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긍정의 몸의 정치학이 구현된다. 1987년 모리슨의 『빌러비드』에서는 셰드를 통해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의 폐해와 그로인해 어린 딸을 살해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고통 받는 부정의 몸의 정치학이 구현됨과 동시에 베이비 석스와 폴 디를 통해 주체적 흑인의 몸과 마음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긍정의 몸의 정치학이 제시된다. 2012년 최근작품인 『집』에서 모리슨은 백인 우월의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프랭크와 우생학 연구대상의 희생양으로 고통 받는 씨를 통해 부정의 몸의 정치학을 보여주며 다시금 그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긍정의 몸의 정치학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노예제도와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적 약자로 백인들의 희생양이 된 흑인들을 묘사함으로써 흑인들의 몸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정의 몸의

정치학이 모리슨의 초기, 중기, 후기 소설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작가는 백인 중심 사회의 불평등함과 불의를 부정의 몸의 정치학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흑인들에게 정체성을 구축하고 온전한 사회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 줄 것을 긍정의 몸의 정치학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자신의 에세이 「집」 (“Home”)에서 인종주의적 집(“house”)이 아닌 인종차별 없는 집(“home”)으로 변해가야 함을 강조(5)하는 바와 같이, 혼종 문화공동체인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인종차별 없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공동체의 따듯한 집과 같은 평등한 사회공동체를 제시한다.

인 용 문 헌

- Angelo, Bonnie. “The Pain of Being Black: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1994. ed. Taylor-Gutherie, Danille. Jackson: Mississippi UP. 255-261. 1994. Print.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Classics, 1994. Print.
- Coates, Ta-Nehisi. *Between the World and Me*. New York: Spiegel & Gru. 2015. Print.
- Denard, Carolyn C. Blacks, “Modernism, and the American South: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Toni Morrison Conversations*, ed. Denard, Carolyn C. Jackson: Mississippi UP. 2008. Print. 178-195. Print.
- Fanon, Frantz. 1967.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Print.
- Ferguson, Rebecca. *History, Memory and Language in Toni Morrison’s Beloved*. Contemporary American Writers: Gender, Class, Ethnicity. ed. Lois Parkinson Zambora. London: Longman Limited. 154-174. 1998. Print.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ment*. New York: Vintage Books, 1995. Print.
- Furman, Jan. *Toni Morrison’s Fiction*.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6. Print.
- Grewal, Gurleen. *Circles of Sorrow, Lines of Struggl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98. Print.
- Hackney, Sheldon. ““I Come from People Who Sang All the Time”: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126-138. *Toni Morrison Conversations*, ed. Denard, Carolyn C. Jackson: Mississippi UP. 2008. Print.
- Harris, Trudier. *Fiction and Folklo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Knoxville: UP of

- Tennessee, 1997. Print.
- Hostetler, Ann. “Resurrecting the Dead Girl: Modernism and the Problem of History in *Beloved*, Jazz and Paradise.” *Toni Morrison : Memory and Meaning*. ed. Seward, Adrienne Lanier, Tally Justine. Jackson: Mississippi UP. 2014. Print.
- Jung, Hwa-yol. *Body Politics*. Seoul: Minumsa, 1999. Print.
[정화열. 『몸의 정치』. 박 현모 역. 서울: 민음사, 1999]
-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Print.
- _____. *Beloved*. New York: A Plume Book. 1988. Print.
- _____. *Home*. New York: Vintage Books. 2012. Print.
- _____. “Home.” *The House that Race Built*. Ed. Wahneema Lubiano. New York: Vintage Books. 1998. 2-12. Print.
- Phipps, Alison. *The Politics of the Body Gender in a Neoliberal and Neo-conservative Ag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14. Print.
- Rushdie, Salman. 2008.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Toni Morrison Conversations*, ed. Denard, Carolyn C. Jackson: Mississippi UP. 51-61. 2004. Print.
- Schappell, Ellissa. “Toni Morrison: The Art of Fiction.” 1992. *Toni Morrison Conversations*, ed. Denard, Carolyn C. Jackson: Mississippi UP. 62-90. 2004. Print.
- Silverblatt, Michael. 1998. “Things We Find in Language”: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Toni Morrison Conversations*. ed. 2008. Jackson: Mississippi UP. 2004. Print.
- Stepto, Robert. “Intimate Things in Place: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10-30. 1976. *Toni Morrison Conversations*, ed. Denard, Carolyn C. Jackson: Mississippi UP. 2004. Print.

조비결

주소: (24433) 강원 춘천시 영서로 2319 302-1105

이메일: projoh@hanmail.net